

정지용과 동인지 『街』에 대하여

– 새 자료의 소개를 중심으로

호테이 토시히로*

1. 들어가는 말

정지용에 관한 연구는 김학동 교수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 그럼에도 그 초기 작품활동에 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고는 그러한 결탁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지용의 시 작품이 공식적인 잡지에 활자화된 것은 『學潮』 창간호(1926년)에 실린 「카페 프란스」 등이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다.¹⁾

그러나 이번에 필자가 조사한 결과 그것보다 1년 앞서 1925년에 그 당시 일본 경도에서 발행되었던 동인지 『街』에 일어 시 3편을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것은 동시에 일어 시로서도 『近代風景』에 실린 일련의 작품보다

* 박사과정

1) 양왕용, 『정지용시연구』, 삼지원, 1988. 83면.

도 앞서 나온 셈이 된다.²⁾ 이하에 그 대략을 소개하기로 한다.

2. 동인지『街』 및 그 동인들

1. 서지적인 고찰

동인지『街』 및 그 동인들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상세한 것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그들에 관해서는 기존의 문학사전 혹은 연구서 등에도 나오지 않으며,³⁾ 그 윤곽은 이번에 발견된 이 잡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街』는 현재 확인된 것으로서는 2권 2호(1925년 2월), 2권 3호(1925년 3월), 2권 4호(1925년 4월), 2권 7호(1925년 7월) 등 4권이 남아 있을 뿐이다.⁴⁾ 발행 소는 '京都同志社大學內 街社'로 되어 있고, 편집 겸 발행인에는 2권 2호~2권 4호는 佐藤圭四郎, 2권 7호는 池田潤으로 되어 있다. 또한 발행 날짜 옆에 '毎月一回一日發行'이라는 말이 보인다.

『街』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2권 2호(통권 3호, 1925. 2)의 편집후기에 "동지사(同志社), 넓게 말해서 교토(京都)조차도 한 권의 문예잡지를 안 갖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지는 벌써 제3호를 내게 되었다"라고 한 것으로 보이⁵⁾ 이 잡지는 大正 13년(1924년) 12월 쯤에 창간호가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25년 7월호 표지에 'No. 8'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매월 1회' 발행이란 원칙은 지키고 있었던 것이며 따라서 5월

2) 정지용의 일어시에 관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김학동, 「정지용연구」, 민음사, 1987.

鴻農映二, 「정지용과 일본시단—일본에서 발굴한 시와 수필」, 『현대문학』, 1988. 9.

熊木勉, 「정지용과 '근대풍경'」, 『승실어문』 9, 1991. 5.

3) 일본 근대문학관에는 『街』라는 잡지가 두 가지 소장되어 있고, 『日本近代文學大事典』(講談社, 1978)에도 기술되어 있으나 이들은 각각 中山省三郎, 江口隼人 등과 같은,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문학자들이 주재한 잡지이며 여기서 말하는 『街』와는 다른 것이다.

4) 早稻田대학교 중앙도서관에는 제3호(1925. 2), 제4호(1925. 3), 제5호(1925. 4), 제8호(1925. 7) 등 4권이 소장되어 있고, 同志社대학교 도서관에는 제3호, 제4호가 소장되어 있다. 국회도서관, 근대문학관, 京都정보센터에는 없다.

5) 『街』(1925. 2), 84면.

호, 6월호도 나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같은 호 편집후기에는 “8월호, 9월호는 휴간되고 말았다. 여름휴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다. 10월호부터는 편집을 일변하여…”라고 쓰고 있는데⁶⁾ 현재로서는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 중 정지용은 25년 3월호에 「新羅の柘榴」를, 7월호에 「まひる(한낮)」과 「草の上(풀위에서)」 등을 기고하고 있다.

2. 동인들

앞에서 인용한 제2권 2호(1925년 2월호) 편집후기에는 또한 “『街』의 동인들은 모두 다 부모님 신세를 진 사람들이며…”라고 써어 있으며⁷⁾ 발행소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京都同志社大學內 街社’로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잡지는 동지사 대학교 학생들의 동인지임을 알 수 있다. 25년 7월호에는 ‘街社同人’으로 23명의 이름이 실려 있으나 다 일본인이며 정지용의 이름은 없다. 다만 편집후기에 “이번 달부터 새로이 가입한 동인들의 작품을 시란에 게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鄭군, 松本군, 下村군 등이다.”라고 쓰고 있는 바⁸⁾ 정지용이 ‘街社同人’이었다는 점은 틀림없다.

이 잡지가 발간된 1924~25년 무렵은 일본에서 동인잡지가 한창 출간된 시기이기도 하다. “관동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은 모든 면에서 모던 조(調)로 나타났고 국민생활도 그 양상이 일변되었다. 구문학에 시원치 않은 짙은 세대에 의한 수 많은 동인잡지가 창간되었다. (...) 赤門계[동경대학]의 「新思潮」, 「青空」, 「朱門」, 「鐵」, 大阪고교계[현 오오사카 대학]의 「辻馬車」, 一高[현 동경대학]의 「回轉時代」, 三高[현 교토대학]의 「眞畫」, 三田계[慶應대학]의 「葡萄園」, 「橡」, 「山蘭」, 「三田文藝陣」, 早稻田계의 「主潮」, 「朝」 등이 있다.”⁹⁾ 말하자면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동지사 학생들도 동인지를 발행한 것이며 정지용도 그 와중에 있었던 셈이다.¹⁰⁾

6) 『街』(1925. 7), 61면.

7) 주5)와 같음.

8) 주6)과 같음.

9) 小田切進 편, 「日本近代文學年表」, 小學館, 1993. 143면.

10) 정지용은 그 후에도 또 한 번 「空腹祭」라는 동인지에 참가한 바 있으나 이 잡지는 제1

3. 정지용의 시 3편에 대하여

2에서 본 바와 같이 『街』에 실린 정지용의 시 작품은 확인된 것으로 모두 세 편인데 그것을 다시 보이면 다음과 같다.

「新羅の柘榴」(신라의 석류나무)	『街』(1925. 3)
「まひる」(한낮)	『街』(1925. 7)
「草の上」(풀위에서)	같은 책

위 세 편 중 「新羅の柘榴」는 나중에 『조선지광』(1927. 3)에 실린 「柘榴」와 거의 똑 같고 발표시기로부터 생각한다면 일어시 「新羅の柘榴」가 한국어 시 「柘榴」의 pre-text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柘榴」 말미에는 ‘一九二四. 二’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지용은 먼저 한국어로 「柘榴」를 쓰고 나중에 그것을 일본어로 옮겨 놓고 『街』에 기고한 것으로 생각된다.¹¹⁾

한편 「新羅の柘榴」의 4개월 후에 발표된 「まひる」는 같은 시가 『近代風景』(1927. 6)에 실렸는데 이것은 『街』 게재시(text A)가 『近代風景』 게재시(text B)의 pre-text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 발표순서를 보면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차이가 있다는 점, 둘째 text A와 text B를 비교하면 거의 같으나, 다만 6 연이 text A에서는 ‘ゆびさきに(손가락 끝에)’로 되어 있는 데에 비해 text B는 ‘ふえまめふく(콩피리를 불은)’이라는 구절을 붙여 5연과의 연속성을 강하게 하

집(1929. 9. 15. 발행)밖에 확인되어 있지 않으며, 정지용도 이 잡지에는 새로운 작품을 보내지 못해 편집부 쪽에서 할 수 없이 『近代風景』에 기고한 것과 같은 일어 시 「かつふえ・ふらんす(카페 프랑스)」를 실었을 뿐이다.(『空腹祭』 제1집, 1929. 9. 15. 31면) 따라서 사실상 정지용의 동인활동은 이 시기만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11) 정지용의 일어시에 관해서는 단순히 한국어 작품의 번역으로 보는 연구자(양왕용, 앞의 책, 106면)도 있으나 그의 일어 시의 완성도 및 그의 많은 일어 시를 채택한 『近代風景』의 수준, 그 잡지에의 발표 경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오히려 다른 창작 작품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해 text A가 5, 6연 사이에서 다소 단절감이 없지 않는 것에 비해, text B에서는 시 전편의 연속성이 생겼다는 점 등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두 편에 비해 「草の上」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 즉 한국어 작품에도 일어 작품에도 유사한 작품을 찾을 수 없는 작품이며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품이다.

정지용의 일어 시를 생각할 때 그 원천 문제가 있다. 위에서 본 세 작품 중 「新羅の柘榴」를 제외한 나머지 두 편도 그것에 대응하는 한국어 작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¹²⁾ 사실 김학동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8편의 일어 시가 각각 한국어 시와 겹쳐지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김학동 교수도 지적하듯이 한국어 시가 없는 작품도 적지 않다.¹³⁾ 그리고 정지용이 기타하라 하쿠슈(北原白秋)한테 격찬을 받았는데 그것은 일본어 실력도 뛰어나다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정지용의 일어 시는 그것에 대응하는 한국어 시가 있는 경우도 단순한 번역시보다는 일종의 창작시로 보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그런 시각에서 볼 때 「まひる」와 「草の上」 두 작품도 일어 창작시라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4. 정지용의 일어 시와 한국어 시의 비교 고찰

정지용의 일어 시와 한국어 시의 비교에 관해서는 일찍이 김학동 교수의 연구가 있다. 여기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일어 시 「新羅の柘榴」와 한국어 시 「석류」를 비교 고찰하려고 한다.

新羅の柘榴

柘榴

12) 이 점에 관해서 정지용의 아들 정구광씨는 “아버지가 일본어로 시를 쓴 경우 반드시 그 원천이 될 한국어 작품이 있다. 아버지는 먼저 한국어로 시를 쓴 다음에 일어로 번역한 것”이라고 증언했다.(1996년 12월 13일 면담에 의함)

13) 김학동, 앞의 책, 185면.

薔薇のやう咲きゆく火爐の炭火 薔薇吳 처럼 굽게 피여 가는 화로예 숫불,
立春節の夜は藻汐草焼く香りする 立春 때 밤은 마른 풀 사르는 냄새가 난다.

一冬越しの柘榴を割り 한 겨울 지난柘榴 열매를 썩이여
ルビーの實を一つひとつまむ 紅寶石 가튼 알을 한알 두알식 맛 보노니

ああ透き通つた追憶の幻想を 透明한 넷 생각, 새론 시름의 무지개여.
金魚のやうな幼い觸感よ 金붕어 처럼 어린 너릿 너릿 한 늑김이여.

この實は去年の神無月 이 열매는 지난 해 시월 상월, 우리들의
われらの小さい物語りの始まつた頃熟つた 조그만한 니야기가 비롯될 때 익은 것이어니,

少女よいつか知らぬ間そと窺く 자근아씨 야, 가너린 동무 야, 날몰니 것들인
やうになつた
おまへの胸に眞白い仔兎が二匹 네 가슴에 조름 조는 옥록기가 한 쌍.

傳説の池に泳ぐ小魚の指と指 넷못 속에 혜엄치는 흰고기의 손까락, 손까락,
かすかな銀線のふるへ 외롭게 가볍게 스스로 는 銀실, 銀실.

ああ柘榴の實をつまみつ 아아柘榴알을 알알히 비추어 보며
新羅千年の空を夢みる 新羅 千년의 푸른 한울을 꿈꾸노니
- 一九二四. 二. -

(『街』(1925. 3), 50~51면) (『朝鮮之光』(1927. 3), 15면)

이 두 편을 비교해 볼 때 「柘榴」에 있고 「新羅의柘榴」에 없는 말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많다는 점, 그리고 「新羅의柘榴」에서는 단어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데에 비해 「柘榴」에서는 반복하고 있다는 점 등이 눈에 띈다.

전자의 예로서 1연의 '굽게', 마지막 연의 '푸른'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서는 '追憶の幻想を' - '넷 생각, 새론 시름의 무지개여', '少女よ' - '자근아씨 야, 가너린 동무 야', 'かすかな銀線のふるへ' - '외롭게 가볍게 스스로 뼜는 銀실, 銀실'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언어적인 특성으로 인한 차이점도 생각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쓴 작품에 비해 나중에 발표한 작품에 퇴고한 흔적이 보

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본 「まひる」의 경우도 나중에 다시 「近代風景」에 발표한 것이 시 전체의 연속성이 보인다는 점과도 상통하는 것이다.¹⁴⁾

5. 맷는 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同志社대학교의 학생들이 낸 동인지『街』에 실린 정지용의 일어 시 세 편은 활자화된 작품으로서는 가장 빠른 시기의 작품이다.

둘째, 그 중 「新羅の柘榴」는 발표시기로 생각하면 1927년 3월 「조선지광」에 실린 「柘榴」보다 앞서나 내용 등으로 볼 때 한국어 시 「柘榴」를 퇴고해서 일어로 옮겨 놓고 「新羅の柘榴」로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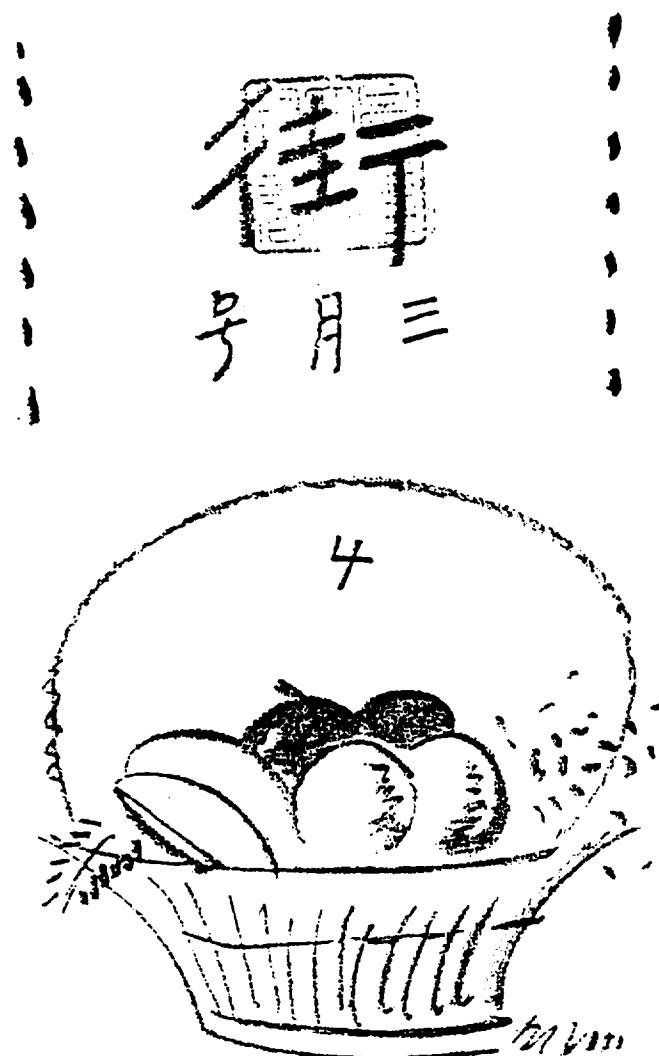
셋째, 「まひる」는 1927년 6월 「近代風景」에 발표된 「まひる」의 pre-text가 된다.

넷째, 「草の上」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이다.

이번에 새로운 발굴에 의한 조사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앞으로도 「街」의 과학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며 아울러 정지용의 한 국어 시와 일어 시의 보다 깊이 있는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로 「街」의 표지 하나와 「街」에 실린 원시를 첨부한다.)

14) 정지용의 한국어 시와 일본어 시의 비교 대상 작품으로서는 「故鄉」(『東方評論』1호, 1932. 4)과 「ふるさと」(『徵文』17호, 1939. 12)가 있으나 필자는 「ふるさと」를 보지 못했다. 이 작품은 김학동 교수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구광씨 말에 의하면 정구광씨도 안갖고 있으나 이 작품이 「徵文」에 실린 것은 틀림없다는 것이다. 각각 1996년 12월 9일 및 13일 면담에 의함.



行 里 社 貢 廣 大 事 雜 誌

<「街」, 1925년 3월호 표지>

한국

3

韓 軍 元 | 韓

新羅の城郭

新羅の内城の城門

新羅の城門の城門

新羅の

新羅の城門の城門

新羅の城門の城門

新羅の城門

韓 軍 元 | 韓

新羅の城門の城門の城門

<『街』, 1925년 3월호 게재 작품>

草

の

上

パンミ水を飲む

ソシヨウソウジヤウ

血紅色は魔が祟(さぶ)じへなしけ?

行け! 愚

ハレアガル

よひうき

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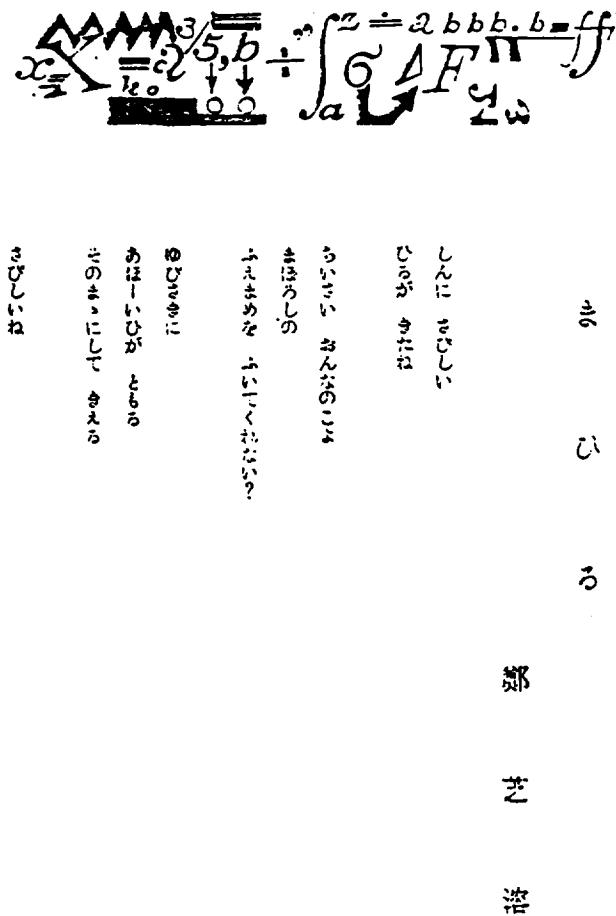
口ひき!

伊太利人のやつに魔(ま)

セバタニ——ハジガヌキなべだ

ハセヨウヒンセイ

おまじない



<「街」, 1925년 7월호 게재 작품>